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내일은 오전에 '2027년 미국 경제 전망' 세미나가 있습니다.

[미국 금융]
- WSJ: 미 국채 금리 2002년 이후 최고치…30년물 5.716%

[뉴욕
- Bloomberg: 뉴욕 외에 뉴저지도 물가 부담 겪어

[에너지]
- WSJ: 브렌트유 $101 돌파…후티 반군 공격·미 멕시코만 폭풍에
- YahooFinance: 수확철 맞아 디젤 가격 폭등

[AI와 글로벌 경제]
- Bloomberg: AI 수요로 글로벌 무역 성장…지정학적 불안 불구
- CNBC: IMF 총재 "AI는 세계 경제의 양날의 검"

[주택]
- Bloomberg: 미 30년 모기지 금리 7.49% 급등… 3년래 최고치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우버, 23억 달러에 식품 케이터링 플랫폼 인수
- YahooFinance: 맥도날드, 가맹점 AI 가격 추천 도구로 피소
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금융]

WSJ: Bonds Sell Off Again, Sending Yields to 24-Year Highs

미 국채 금리 2002년 이후 최고치…30년물 5.716%

- 연준의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미 국채 매도세가 다시 커지면서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.
- 10년물 금리는 5.337%, 30년물 금리는 5.716%까지 오르며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.
-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, 유가 반등, 증시 신고가,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을 원인으로 지적했다. 특히 빅테크들이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 채권을 발행하면서 미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었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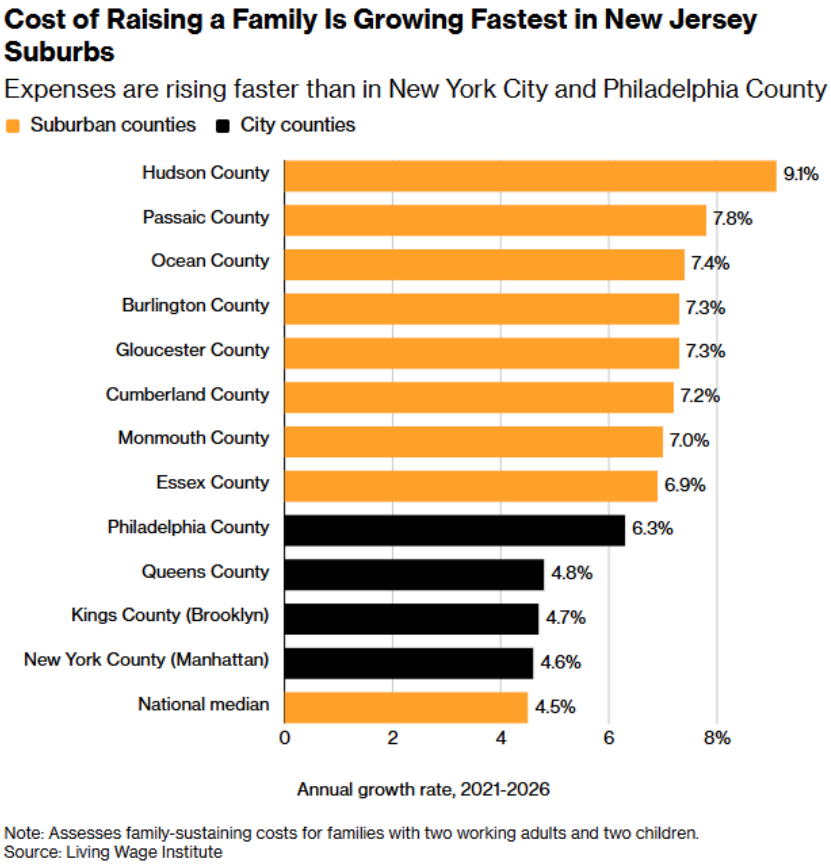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뉴욕]

Bloomberg: NYC Families That Fled to Suburbs See Jersey Discount Disappear
뉴욕 외에 뉴저지도 물가 부담 겪어

- 뉴욕시의 높은 주거비를 피해 뉴저지 외곽으로 이주했던 가족들이 급등한 생활비로 압박을 받고 있다.
- 비영리 기관 Living Wage Institute에 따르면, 뉴저지에서 맞벌이 4인 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은 2021년 이후 약 $40,800(연평균 6.7% 상승) 급등했다. 이는 미국 전체 평균 상승률(4.5%)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.
- 팬데믹 이후 집값이 치솟은 데다 2023년 이후 보육비와 의료비 상승폭이 3배 이상 확대됐다. 미국 내 생활비가 가장 빠르게 오른 20개 군(County) 중 8곳이 뉴저지에 집중되며 외곽 이주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.



기사

[에너지]

WSJ: Oil Prices Rise as Houthi Attacks, U.S. Gulf Storm Raise Supply Risks
브렌트유 $101 돌파…후티 반군 공격·미 멕시코만 폭풍에

-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습과 미 멕시코만 기상 악화 때문에 생산 차질 우려가 다시 떠오르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다.
- 12월물 브렌트유는 0.7% 오른 배럴당 $101.27, 서부텍사스유는 0.6% 상승한 $88.94를 기록했다.
- 사우디 리야드 북부로 향하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격추되고 민간 공항들이 피격당하는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열된 영향이다.
- 미 에너지정보국(EIA)은 공급 차질 위험을 반영해 4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대비 $14 올린 배럴당 평균 $105로 상향 조정했다.

기사

YahooFinance: Diesel Prices Surge Just as Farmers Need Fuel the Most
수확철 맞아 디젤 가격 폭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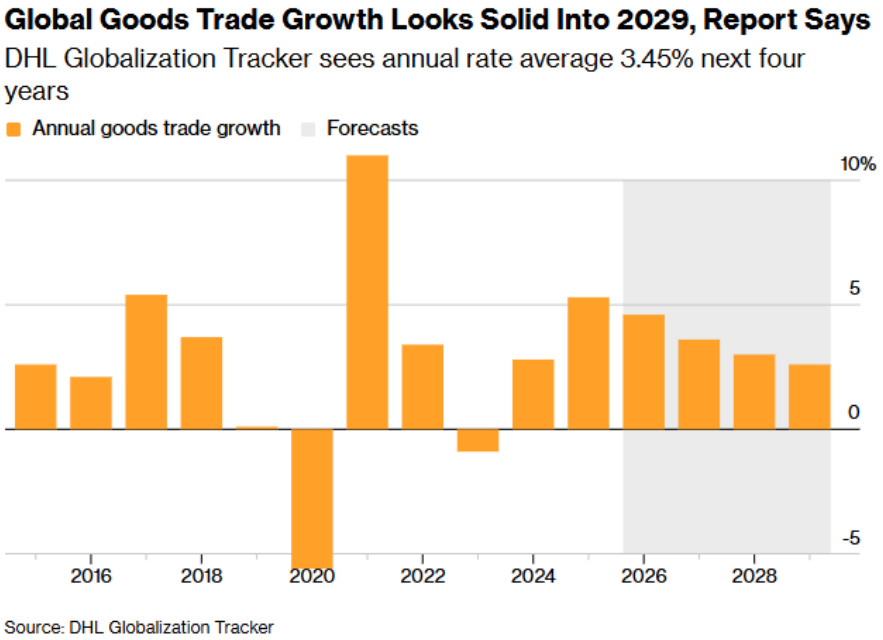
- 수확철을 맞아 전 세계 농가의 디젤 가격이 폭등하며 글로벌 식량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. 호주의 디젤 가격은 리터당 $1.95로 전년 대비 50% 이상 치솟았고, 미국은 지난달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유럽 선물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.
-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이 맞물리며 글로벌 디젤 공급 감소 탓이다.
- 트랙터, 수확기, 유통 트럭 등 농업 전반에 필수적인 디젤 비용이 크게 뛰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.

기사

[AI와 글로벌 경제]

Bloomberg: AI Drives Global Goods Trade Facing Trump Tariffs, War Headwinds
AI 수요로 글로벌 무역 성장…지정학적 불안 불구

- 트럼프 관세와 전쟁 등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AI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상품 무역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
- DHL 글로벌 관련 지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예상(3.6%)을 뛰어넘는 4.6%로 상향 조정됐다.
- 특히 전체 무역 성장세에서 AI 관련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%에서 올해 1분기 76% 가깝게 급증해 글로벌 무역을 이끌고 있다.



기사

CNBC: Why AI is both the hope and the hazard for world leaders, according to IMF chief Georgieva
IMF 총재 "AI는 세계 경제의 양날의 검"

-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100%를 넘어서는 가운데, 긴축이나 증세 없이 부채를 줄일 만한 경제 성장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.

- 그는 과거 철도, 전력망, 통신망 구축 당시 수준으로 AI 분야에 대규모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.
-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과 미국 주식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 구조 탓에, 향후 AI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Mortgage Rates Jump to 7.49%, Highest Since 2023
미 30년 모기지 금리 7.49% 급등… 3년래 최고치

-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19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.49%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. 최근 3주간 약 0.5%p 상승하며 2023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.
-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은 영향이다.
- 모기지 신청 지수도 2.1% 하락해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, 재융자 지수도 7.5% 급락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Uber to Expand Uber Eats Service with $2.3 Billion Acquisition of Catering Platform
우버, 23억 달러에 식품 케이터링 플랫폼 인수

- 우버가 기업용 케이터링 및 직장 식사 플랫폼인 'ezCater'를 23억불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.
- 이번 인수로 Uber Eats는 ezCater 가 보유한 미국 전역 14만 개 이상의 음식점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기업용 B2B 배달 시장으로 영역을 대폭 확장하게 된다.
- 거래는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개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.

기사

YahooFinance: McDonald's sued over AI tool that recommends prices to US franchisees
맥도날드, 가맹점 AI 가격 추천 도구로 피소

- 맥도날드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AI 기반 가격 추천 도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법원에 피소됐다.
- 일리노이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, 맥도날드의 AI 시스템은 매장별 매출 등 동일 지역 내 경쟁 가맹점 간에 공유되지 않아야 할 비공개 데이터를 수집·활용해 가격을 제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.
- 소송 측은 이 같은 가격 설정 시스템이 경쟁을 제한하고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에너지 수급 동향

-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피격돼 선원 12명이 부상하고 이란 탱커 50척이 적체되는 등 해상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. 원유 수송량은 전쟁 전 대비 76% 수준을 회복했으나 정유 시설 피해로 디젤 부족난은 심화되는 양상이다.
-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은 일일 580만 배럴을 정상 가동 중이나, 유조선 선장 대상 전쟁위험 프리미엄이 월 1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 원유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
- 흑해에서도 불가리아 EEZ 내 상선 1척이 드론 공격으로 침몰하고 소치 인근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한국 울산항의 9월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.2% 증가한 536만 톤을 기록했으며, 정부는 비축유 스왑을 2배로 늘리고 중동 비중을 줄이는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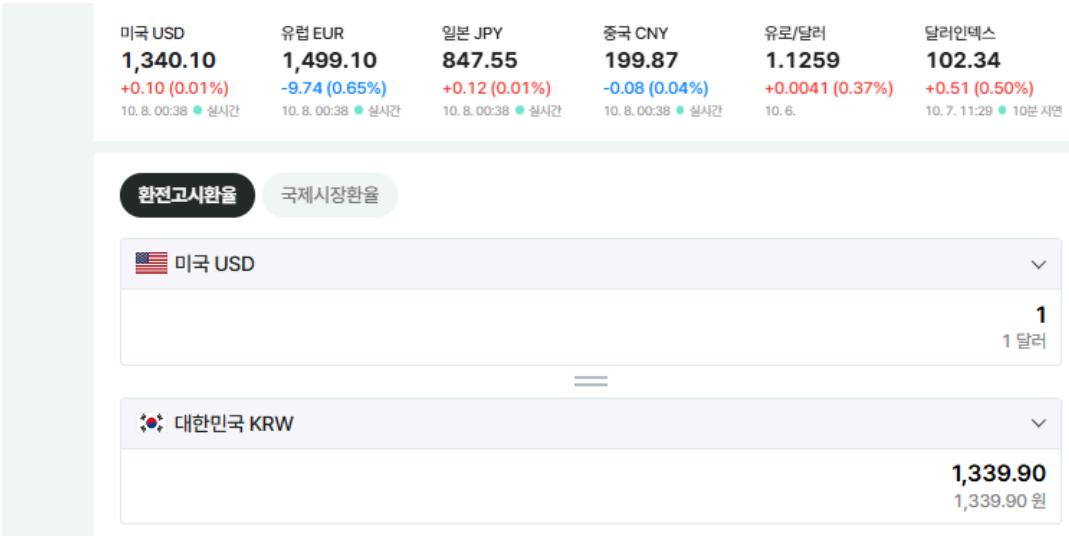
1D 1W 1M 6M 1Y 5Y Max



US 30	51,047.60	-473.6	-0.92%
US 500	7,786.90	-32.1	-0.41%
Dow Jones	51,004.79	-516.49	-1.00%
S&P 500	7,786.86	-32.07	-0.41%
Nasdaq	27,463.59	-136.30	-0.49%
S&P 500 VIX	15.54	+0.53	+3.53%
Dollar Index	102.12	+0.515	+0.51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-25/32	5.685	0.024
10-Year Note	4.625	-2/32	5.310	0.021
7-Year Note	5	-23/32	5.174	0.016
5-Year Note	5	0/32	5.045	0.006
3-Year Note	4.875	-18/32	4.927	0.001
2-Year Note	4.75	0/32	4.791	-0.015
1-Year Bill	0	0/32	4.438	-0.012
6-Month Bill	0	0/32	4.303	0.005
3-Month Bill	0	0/32	4.149	0.016
1-Month Bill	0	0/32	3.945	0.005

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